

노계 가사의 유교문화적 심상공간과 그 의미 지향

이형대*

- 차례 -

1. 문제 제기
2. 대립적 공간 표상과 의미 지향의 강렬성
3. 동질적 공간 표상과 의미 지향의 다층성
4. 결론을 대신하여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leehd@korea.ac.kr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노계 가사에서 유교문화적 심상공간 구성의 특징적 양상을 구명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계가사의 공간분석은 작품의 생성 배경이 되는 실제 공간, 인본주의 지리학의 관점에서 주체에 의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장소로서의 공간 분석 등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간 분석은 모두 인간에 의해 경험된 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구와 상상, 이미지와 상징까지 포괄하고 있는 시적 공간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체험적 공간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것까지도 포괄하는 심상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노계가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계의 초기가사에는 대립적 공간표상이 두드러지는데 <태평사>와 <선상탄>, 그리고 <누항사>가 이에 해당한다. 전쟁과 평화, 궁핍한 현실과 청정한 강호 공간이 대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자의 공간에서 후자의 공간으로 의미지향이 이동하는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제 실현의 강렬성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후의 작품들은 강호라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상되는데, <사제곡>, <독락당>, <입암별곡>, <소유정가>, <노계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표면적인 동질성의 내부에는 상당한 이질적 흐름들과 정서 표현의 편차가 발견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제곡>에서는 평담의 풍류와 전원적 삶의 지향이, <독락당>에서는 존현의 마음과 도체적 자연 표상이, <노계가>에서는 낭만적 흥취와 정신적 보상의 지향성이 두드러진다. 이 모든 노계가사의 배면에는 작자가 현실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이 강렬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박인로, 노계가사, 유교문화적 심상공간, 장소, 공간표상, 선상탄, 태평사, 누항사, 사제곡, 독락당, 노계가

1. 문제 제기

이 논문의 목적은 노계 박인로 가사에서 유교문화적 심상공간 구성의 특징적 양상을 주목하고 그것이 작품의 의미실현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그리고 노계 가사 전반에서 심상공간의 구성은 어떠한 변화의 추이를 보이는지를 구명하는 것이다.

노계 가사가 지니는 공간의 구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김용철은 노계가사의 강호를 別墅, 江亭, 山林, 書院, 精舍의 강호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실제 공간을 주목한 것이다.¹⁾ 이 공간은 모두 국가주의 유교공동체를 표방했던 조선왕조에서 그 기축 이념인 성리학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였던 노계에 의해 탐사되었던 유교문화적 공간들이다. 사실 작품의 생성 배경이 되는 작중 공간의 지리적 탐사와 관련한 연구는 노계가사 연구의 초기부터 수행되어 왔는데, 이를 종합하여 확장시킨 성과도 있었고,²⁾ 개별 작품의 공간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입암별곡>의 28경이 장현광의 성리철학, 자연미, 탈속적 심상을 반영하여 명명되었음을 밝힌 연구도 있었다.³⁾ 이상의 연구가 작품의 실재 공간을 중심으로 했다면, 인식주체로서의 작가가 지각하고 인식한 공간, 즉 ‘주체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공간’을 초점으로 하여 노계 가사작품 전반을 대상으로 분석한 성과도 있었다.⁴⁾ 최근에는 탈근대적, 인본주의적 지리학의 관점에서 장소를 지질학적 공간이 아닌 문화적 공간으로 보려는 논의를 수용하여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체험을 바탕으로 주체에 의

1) 김용철, 「박인로 강호가사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2) 김창규, 「노계 가사시의 지리적 자연배경」, 『노계 시문학 논고』, 박이정, 2007, 241-270면.

3) 박경우·유정일, 『입암별곡』의 공간론적 배경과 공간적 의미, 『한국어문학』 제45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217-241면.

4) 김성은, 「노계 박인로 가사의 공간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해 가치가 부여된 ‘장소’로서 노계 가사를 분석한 연구성과도 있어 매우 흥미롭다.⁵⁾

이처럼 간략하게 검토해 보더라도 노계가사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면모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특히 장소성을 도입한 연구가 그러한데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복잡하고도 심오한 측면’을 섬세하게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성’을 중심으로 한 노계 가사의 분석은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주체에 의해 지각되고 체험되어 의미가 부여된 ‘장소’ 역시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는데, 시에서의 재현 공간은 실제의 체험뿐만 아니라 허구와 상상, 이미지와 상징, 정감과 이념에 의해 조성된 환상적 공간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앙리 르페브르식으로 말하면, ‘상상력이 변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길들이려고 시도하는 공간’⁶⁾들을 시와 노래에서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심상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노계가사의 공간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심상공간은 문학의 창작과 향유 과정에서 주체들에 의해 지각되고 체험된 물질적 삶의 공간뿐만 아니라, 상상력에 의해 ‘보이지 않는 것과 초월적인 것까지 포용하는’ 형상적 공간을 말한다.⁷⁾ 이 심상공간은 작가의 실제적 삶이나 한 시대의 역사 현실 또는 문화적 현상과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경험하고 싶은 것, 경험하기 불가능한 것, 거룩한 소망만이 아니라 누추한 욕망까지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5) 김성은, 「<소유정가>의 장소재현과 장소성 —화자의 주체성 문제를 바탕으로—」, 『어문론총』 제5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163-189면, 최현재, 「노계가사에 나타난 장소성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34호, 한국시가학회, 2013, 57-82면.

6) 앙리 르페브르 저,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88면.

7) 김흥규, 『옛시조의 모티프 · 미의식과 심상공간의 역사』, 소명출판, 2016, 18-22면.

해서 이들의 절실한 의미 행위, 나아가 시적 진실이 훼손되거나 반감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 대립적 공간 표상과 의미 지향의 강렬성

대체로 노계의 武人 시절 가사들에는 대립적 공간 표상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작자가 38세인 1598년 겨울, 정유재란의 끝 무렵에 경상도 좌병사 성윤문의 命에 의해 지은 최초의 가사 <태평사>부터 살펴본다. 이 작품은 그가 체험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면서 태평성대라는 소망적 미래의 기원으로 끝을 맺는다.

島夷百萬이 一朝에 衝突호야
 億兆驚魂이 칼 빗출 조차 나니
 平原에 사한 屍는 되두곤 노파 잇고
 雄都巨邑은 豺狐窟이 되얏거늘
 (...)
 唐虞天地에 三代日月 비최소서
 於萬斯년에 兵革을 그치소서
 耕田鑿井에 擊壤歌을 불니소서
 우리도 聖主을 뵈옵고 同樂太平 호오리라

인용 대목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선명하게 대립된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의 상항인 전반부는 전쟁으로 인해 순식간에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조선의 현실공간이 과장적 어조로 그로테스크하게 묘사되고 있다. 조선의 수많은 생명들이 섬 오랑캐의 칼날 아래 혼백으로 흘

어지고, 그리하여 별판에 쌓인 뼈가 산보다도 높다. 문명의 도시들은 어느새 승냥이와 여우같은 왜적들의 소굴로 변해 버렸다. 작자의 회상을 통해 재현된 불과 몇 년 전 조선의 역사 공간인데, 공포와 분노, 적개심의 정서가 그득하다. 이후 명군의 참여와 평양 전투의 승리, 왜적의 퇴각으로 작중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져 ‘天無淫雨 亨니 白日이 더욱 밝다’고 날씨의 이미지를 통하여 평화의 시대가 다가왔음을 노래하고 있다.

인용 후반부는 숭엄한 기원적 어조로 작품을 맺는 끝 대목이다. 요순과 하·은·주 삼대라는 복고적 유토피아, 仁政을 기반으로 하는 유교적 이상국가의 태평 시절과 영원무궁토록 전쟁이 종식된 평화의 나라, 그리하여 농부들은 含哺鼓腹의 격양가를 부르며, 백성들은 임금과 함께 同樂太平하는 세상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래의 공간, 상상의 공간, 희망의 공간인 셈이다. 이 대목에 깔린 시적 정서는 전반적으로 기쁨과 환희가 그득하다.

전쟁과 평화라는 대립적 공간 표상은 노계가 45세 때, 즉 전쟁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1605년에 수군을 지휘하는 직책을 맡아 부산진에 부임하여 지은 <선상탄>에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작품에 대한 검토에 앞서 노계가사의 심상공간을 탐사하는 우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이-푸 투안의 얘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공간조직의 근본 원리를 인간 신체의 자세와 구조,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즉 공간과 장소를 체험하는 것은 신체를 통해서이며, 이것이 문화적 공간으로서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이-푸 투안 저,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133면.

<선상탄>에서 화자의 위치는 전운의 불길한 조짐이 감도는 누런 구름이 낀 하늘 아래 부릅뜬 눈으로 대마도를 바라보고 있는 남해의 병선 위로 설정되어 있다. 화자는 전란의 근원을 생각하다가 배를 만든 황제 軒轅氏를 원망하게 된다. 만일 배가 없었다면 만 리 밖의 오랑캐가 이 땅을 넘볼 수 없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의 상념은 삼황오제 시절의 저 신화적 시공간을 배회하다가 역사적 공간으로 내려온다. 좀더 생각해 보면 한갓 도구에 불과한 배가 전쟁을 촉발시킨 것이 아니라, 침략적인 근성을 지닌 왜적이 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는 왜적이라는 적대적인 인종들을 배출하게 된 근본 원인으로 역사적 인물인 진시황을 지목한다. 그가 장생불사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하여 方士였던 徐市에게 동남동녀를 데리고 삼신산에서 神仙을 찾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사마천의 『사기』, <진시황본기>에도 등장하는 正史의 사실이다.⁹⁾ 돌아오지 못한 서불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갖가지 전설이 생성되었던바, 그중 하나는 ‘서불 일행은 제주도를 거쳐 결국 일본 열도에 도착했고 당시 야만 상태에 있던 일본 종족들을 일거에 평정해 최초의 왕조를 열었으니 서불은 곧 일본인들이 개국의 임금으로 떠받들고 있는 神武天皇이라는’ 이야기이다.¹⁰⁾ 작자는 이 개국신화를 수용하여, ‘장생불사의 헛된 꿈을 꾀 탐욕스런 진시황-실패한 망명자이자 일본 개국의 시조 서불-어느덧 難當敵으로 성장하여 전쟁을 일으킨 섬 오랑캐들’이라는 불의한 인간들의 관계망을 따라 치욕스런 전쟁 공간이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적대적 인간들이 적대적 행위인 전쟁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대립적 위치에 있는 평화의 공간도 <선상탄>에는 산포되어

9) 사마천 저, 정법진외 역, 『사기본기』, 까치, 1994, 166면.

10) 정재서, 「먼 동쪽 神仙의 섬, 자라들이 떠받쳐」, 『동양의 신화』, <https://blog.naver.com/shim8151/100058967939>. 최현재 역, 『조선전기 사대부가사』, 문학동네, 2012, 211면.

있는데, ‘張翰 江東’, ‘浮萍又 漁父’, ‘吾東方 文物’, ‘太平 天下’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바로 유교문화권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실현한 고사와 유교 사회의 이상적 질서가 조화롭게 구현된 세계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대립적 공간 표상을 제시하면서 작품의 의미 지향은 전쟁의 종식과 평화적 질서의 회복으로 귀착되고 있다.

日月光華는 朝復朝 ㅎ얏거든
 戰船 吐던 우리 몸도 漁舟에 唱晚 ㅎ고
 秋月春風에 놓히 베고 누어이서
 聖代 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ㅎ노라

戰船 타던 군사에서 漁舟에 몸을 신는 태평 한민으로, 태평성대의 海不揚波가 상징하는 평화의 시대로 전환되기를 작가는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박인로의 <태평사>와 <선상탄>은 16세기 말 동아시아 국제전의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실제의 배경도 그 편폭이 매우 넓다. 그러나 작중의 심상공간은 신화와 전설 등까지 포괄하고 있어 실제의 현실 공간보다 훨씬 확대되어 있다. 이는 평화와 태평성대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절실한 열망이 투사된 결과이다. 화자는 전쟁이라는 비극적 참상의 원인을 밝히고 평화로운 유교적 이상국가 실현을 염원하면서 신화 및 역사적 공간의 인물들까지 호명하여, 선/악의 대립적 공간에 배치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노계 가사의 대립적 공간 표상은 1611년, 그가 51세에 지은 <누항사>에도 이어진다. <태평사>와 <선상탄>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역사 공간의 갈등 상황과 그 극복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누항사>는 개체적 삶의 지향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를 초점으로 삼는다. <누항사>의 대립 공간은 궁핍한 농가 현실과 무욕·무심의 상호 생활로 나뉘는데, 그 경계선은 恒産의 안정성이다. <누항사>의 해석과 관련하여 박인로의 경제적 기반과 사족적 위상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한미한 처지와 경제적 궁핍 속에서 입지 강화에 노력을 기울인 향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권력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동하였으며, 성장기에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으나 점차 자영농의 처지로 추락하였고, 말년에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¹¹⁾

陋巷 김픈 곳의 草幕을 주피 혀고
 風朝雨夕의 서근 땀피 서피 되야
 닳흠 밥 서흠 粥에 煙氣도 하도할샤
 설데인 熟冷애 빈 비 석일 썬이로다
 얼머만히 바든 밥의 懸鶉 稚子들은
 將碁 버덧 쑈 미덧 나아오니
 人情 天理에 춤마 혼자 머글넌가
 (…)
 瞻彼淇澳혼디 綠竹도 하도할샤
 有斐君子돌아 난디 허나 빌려스라
 蘆花 김픈 고대 明月淸風 버디 되야
 넘재 업슨 風月江山의 절로절로 늘그리라
 無心흔 白鷗야 오라흐며 갈아흐라
 두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11) 손대현,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기반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시가연구』 제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51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볼 때 노계는 1612년 11월 12일 삼남어사로 내려온 최현으로부터 군기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되어 조라포만호에서 파직을 당했다. 작품의 창작시기와 견주어 보면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작중 상황은 작자가 고향으로 돌아와 초막을 짓고서 궁핍한 일상 생활을 감내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누차 지적되었지만 그가 마주한 향촌의 생활공간은 눈물겹기 그지없다. 우선 비축한 식량이 없어 설 데인 송농으로 빈 배를 달래야 하는 처지이다. 서쪽에 두둑 높은 약간의 논이 있어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하나 가뭄이 들어 농사 때를 놓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군다나 늪은 종은 분수를 잊어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다. 잠깐 온 비에 물을 대어 논을 갈고자 하나 소 주인의 변심으로 낭패를 당하고 만다. 사실주의 미학의 높은 성취를 보여줄 만큼 궁곤한 삶의 현실이 짙진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세태에 따라 변해버린 인심의 고약함이 진솔하게 재현되어 있다. 이 생활 공간은 생계 유지의 기반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모의 장소이다.

즉 화자가 자영농의 삶을 추구하자고 해도 생산의 터전인 논은 가뭄 탓에 쓸모없고, 생산수단에 해당하는 종과 소도 효용이 없으며, 이 공간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한 친밀감이나 신뢰감이 없다. 인용 대목상단에서 오랜만에 받은 초라한 밥상에 험벗은 자식들이 장기판에 졸밀 듯 나아오는, 그저 생존본능에 따라 동물적인 감각으로 움직이는 어린 자식들의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恒産을 유지하기에는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 심상공간에 등장하는 주체의 모습도 무기력하고 왜소하게 묘사된다. 따라서 이 장소에서의 지배적인 정감은 슬픔과 탄식이다. 약간의 양식마저 늪은 쥐에게 도둑맞고서 흰머리를 굵적이며 탄식하거나, 소 빌리기를 실패하고서는 헌 병거지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맥없이 물러오는 초라한 모습인 것이다. 그가 향촌

의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유대감 형성에 실패했으며, 경작 생활을 함으로써 일정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점에서 ‘정체성 확립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소를 상실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선행 연구의 지적은 적실하다고 할 만하다.¹²⁾

그리하여 그가 대안적인 삶의 장소로 선택한 공간이 바로 인용 하단부의 강호적 삶의 공간이다. 이 강호는 ‘님재 업슨 風月江山’, 즉 사적 소유의 공간이 아니다. 이기적인 다툼이 없는 만인 공유의 공간이다. 따라서 누구라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다. 갈대꽃 깊어가는 이 공간에서 화자는 명월청풍과 白鷗의 벗이 되어 절로절로 늙어가고자 한다. 이 심상공간의 표상은 무갈등의 청정한 공간이고 낯선 대 하나도 흔쾌히 빌릴 수 있는 나눔의 공간이며 한없이 평화롭고 심미적인 장소로 나타난다.

이처럼 대립적 공간 표상이 이루어진 노계의 가사 작품들에서는 심상공간의 구성과 그 특질이 선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가사 작품의 시상 전개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공간 표상은 앞부분에, 그리고 긍정적인 공간 표상은 뒷부분에 배치하여 그 의미 지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시키며, 그리고 작품의 주제 또한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동질적 공간 표상과 의미 지향의 다층성

노계가 <누항사>에서 강호적 삶의 지향을 선명하게 드러낸 이후로 노계 가사의 유교문화적 심상공간은 대개 강호라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상된다. <사제곡>, <독락당>, <입암별곡>, <소유정가>, <노계가

12) 최현재, 앞의 논문(2013), 64-65면.

> 등 별서나 서원, 누정 등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의 공간 구성에 대해서 김성은은 세부적으로는 존현 공간과 소유 공간으로 나누어 살폈지만, ‘대상 공간이 지닌 이념성을 부각하여 형상화한 것’이라는 공통적 특질을 들어 ‘이념 공간’을 표상한 가사들로 유형 분류를 하였다.¹³⁾ 최현재 또한 ‘<사제곡>, <소유정가>, <독락당> 등에서는 다양한 장소 경험과 장소의 정체성 회복의 노력이 절실하게 다루어졌으며, <노계가>에서는 강렬한 장소애를 통해 작가의 실존과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¹⁴⁾ 이로써 본다면 이 글에서 묶어 본바 동질적 공간 표상의 작품들이라는 점과 대체로 부합한다. 그러나 이 작품들의 심상공간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표면적인 동질성의 내부에 상당한 이질적 흐름들과 정서표현의 차이가 발견된다.

① <사제곡>, 평담의 풍류와 전원적 삶의 지향

<사제곡>은 벼슬에서 물러나 경기도 용진의 사제에서 은거하고 있던 이덕형을 1611년 박인로가 찾아가 종유하면서 그를 대신하여 지은 가사이다. 代作의 특성상 화자는 이덕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의 삶을 투영하여 致仕閑居客의 평담한 삶의 흥취가 두드러지게 형상화 되고 있다. 작품은 조정의 벼슬에서 물러 나와 한강을 따라 사제로 들어오면서 名區勝地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岸芝汀蘭은 清香이 郁郁하야
 遠近에 이어잇고
 南澗東溪에 落花이 7독 줌겨거놀

13) 김성은, 앞의 논문(2013), 29-45면.

14) 최현재, 앞의 논문(2013), 79면.

荊棘을 헤쳐 드러 草屋數間 지어두고
鶴髮을 뒤희고 終孝를 흐려너겨
爰居爰處 하니 此江山之 임재로다

사제는 화자가 鶴髮을 위해 終孝하고자 선택한 공간이지만, 강 언덕과 물가에 지초와 난초가 맑은 향을 자아내는 청신한 곳이며, 시냇물에는 낙화가 잠겨 있는 심미적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가시덤불 헤치고 화자가 마련한 거처는 草屋數間이다. 욕심 없이 담박하게 살고자 하는 공간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작중 주체의 생활은 어떠한가?

中隱菴 쇠뿔소리 谷風의 섯거느라
梅牕의 이르거든 午睡를 곱 씨야
病目を 여러보니 밤 비에 곱 핀 가지
暗香을 보내여 봄철을 알외느다
春服을 처엄 입고 麗景이 더딘 저기
靑藜杖 빗기 쥐고 童子六七 불너내야
속님 난 잔피예 足容重케 흐거러
淸江의 발을 씻고 風乎江畔 흐야
興을 타고 도라오니
舞雩詠而歸를 저그나 부를소냐

인용 대목은 심미적 형상이 두드러진다. 북한강 건너 중은암의 종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매창에 이르러 화자의 낮잠을 깨운다. 이로써 이 공간의 주인은 밤비에 핀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맡고서 비로소 봄이 왔음을 안다. 인위적인 책력이나 세속적 질서에 구애됨이 없이 자

연과 조화를 이룬 삶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독자들이 느끼기에 종소리와 매화 향기의 심미적 이미지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평담한 삶을 지향하는 은거자의 심미적 감각과 조용되는 듯 여겨진다. 그 다음 구절은 이 봄날에 주변의 풍광을 배경으로 유상하는 장면이다. 『논어』 <선진편>의 패러디인데, 증점이 공자에게 말한 소망을 이덕형의 상황에 알맞게 변용한 것이라 할 만하다. 즉 화자가 동자 6-7인과 새로 난 잔디 길을 조심스럽게 걷고자 한다. 그리고 맑은 강물에 발을 씻고 용진의 강독을 따라 흥을 타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간 ‘육기영귀’의 구절은 해석이 다양했으나 주희가 증점을 요순의 기상이라고 칭찬하고 안회와 동일한 위상을 부여하면서부터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고 한다. 즉 육기영귀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 자연과 더불어 심적 즐거움을 향유’하는 삶의 방식이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¹⁵⁾ 나아가 이는 기상이 높은 인격자의 즐거움을 표상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심상공간의 구성은 절제된 유교문화적 풍류를 드러낸 것으로 자연미를 향유하는 평담한 삶의 자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제곡>에는 유상의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마치 이 장면처럼 정서적 절제와 담담한 흥취를 넘어서지 않는다.

흐물며 南山 노린 곳히 五穀을 가초 심거
 먹고 못 남아도 곳지나 아니흐면
 내 집의 내 밥이 그 맛시 엇더흐뇨
 採山釣水흐니 水陸品도 잠깐 곳다
 甘旨奉養을 足다사 홀가마는

15) 강영순, 「산수자연에 대한 유가적 즐거움 연구」, 『미학』 제19집, 한국미학회, 2014, 14면.

烏鳥含情을 뵈고야 말녇노라

위의 장면은 전원적 삶의 면모를 드러내어 마치 도연명이 ‘토지를 일구며 살아가는 순박한 생활 정취’를 보여주었던, 그 소박하고도 따스한 정감을 상기시킨다. 손수 노동한 곡물로 학발의 모친을 봉양하며, 모자라는 것은 산과 강에서 보충한다. 운길산과 북한강 사이에 위치한 사제였기에 실제적으로도 가능할 터이다.

요컨대 <사제곡>은 평담과 절제의 강호미학과 전원적 삶의 소담한 흥취를 효도라는 유가의 이념과 조화롭게 조응시킨 심상공간을 창출한 작품이라고 규정할 만하다.

② <독락당>, 존현의 마음과 도체적 자연 표상

이에 비해 <독락당>의 심상공간은 사뭇 다르다. <독락당>은 그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1619년에 노계가 성리학 수양을 위해서 이언적의 자취가 남아 있는 독락당을 찾아가 지은 작품이라는 설을 신뢰할 만하다. 독락당은 서원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유가 사대부들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사회 건설과정에서 서원의 건립은 매우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퇴계 이황으로부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주창된 서원은 ‘講明道學과 尊賢立祠를 위한 기구로 주자학의 연마와 사회실천윤리의 실현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¹⁶⁾ <독락당>의 화자는 노계 자신이며, 작품의 시작부터 영남학파의 주요한 성리설을 제공하고 조선 성리학의 독창적 경지를 회재 이언적의 자취에 대한 존모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16) 이수환, 「조선전기 선비들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사회」,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6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5, 60면.

紫玉山 名勝地에 獨樂堂이 蕭灑함을
 들런디 오래로디
 이몸이 武夫로서 海邊事 孔棘거닐
 一片丹心에 奮義를 못내하야
 金鎗鐵馬로 餘暇업시 奔走타가
 中心 景仰이 白首에 더욱 깊허
 竹杖芒鞋로 오날사 차자오니
 峯巒은 秀麗하야 武夷山이 되어잇고
 流水는 盤回하야 後伊川이 되었느다

화자는 안강 서쪽 30리에 위치한 자옥산 자락의 독락당이 맑고 깨끗하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실상은 건물이 소쇄하다기보다는 회재의 맑고 깨끗한 인품과 도학자로서의 엄정한 학문적 태도가 이 공간에 투사되었기에 가능한 표현일 터이다. 그러나 전란에 참여하여 충성을 다하느라 찾아보지 못하다가 마음속의 그리움이 흰 머리에 더욱 깊어 오늘에야 이곳에 이르렀다고 한다. 작중의 현실 공간에 고사 인물들의 거처를 오버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노계 가사의 주요한 창작방법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역사인물들 가운데 주로 성리학자들이 호명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자옥산의 산봉우리가 수려한 것은 곧장 주자가 살았던 무이산과 견주어지고, 자계의 흐르는 물이 독락당을 휘도는 것은 정이의 후이천과 비견되는 것이다. 공간의 겹침을 통해 도학적 도통의 견실함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이어서 독락당에 쌓인 만 권의 서책과 이를 벗 삼아 이치를 깨우치는 회재의 즐거운 학문적 삶에 대한 회고가 서술된 다음 독락당 주변의 자연풍광에 대한 묘사가 기술된다. 그러나 화자의 관심은 자연풍

광의 심미성보다는 자연에 내재한 성리학적 이치에 더 쏠린다. 독락당 주변의 소요는 ‘尋眞’, 즉 참된 이치를 찾아가는 발걸음인 것이다.

尋眞을 못니 허야 養眞菴의 도라드러
 臨風靜看 허니 니 뜻도 瑩然 허다
 退溪先生 手筆이 眞得인 줄 알리로다
 觀魚臺 누려오니 실은 덧흔 盤石의
 杖履痕이 보이논닷 手栽長松은 넷 빗출 씌여시니
 依然物色이 그 더욱 반가올샤
 神清氣爽 허야 芝蘭室에 든 덧 허다
 多少古跡을 보며 문득 矜각 허니
 層巖絶壁은 雲母屏이 절로 되야
 龍眠妙手로 그린 덧시 버러 잇고
 百尺 澄潭애 天光雲影이 얼희여 줌겨시니
 光風霽月이 부논 듯 부시논 듯
 鳶飛魚躍을 말업슨 벗을 삼아
 沈潛翫索 허야 聖賢事業 허시덧다

화자는 독락당 원편 자계 물가에 세워진 溪亭의 편액이 퇴계 선생의 글씨인 것을 확인하며 養眞의 의미를 체화하고자 한다. 계정 아래의 깔아놓은 듯한 반석에서는 회재 선생의 지팡이와 신발 자국을, 손수 심은 長松에서도 선생 당대의 옛 빛을 확인하면서 불변하는 이치적 자연의 항속성을 노래한다. 이처럼 영속적인 사물들은 화자의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마치 지란의 향기를 풍기는 방에 든 듯 도체적 자연에 동화되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그 아래 기술된 백 척의 맑은 못에 운영천광이 어린 모습이나, 광풍제월과 연비어약

은 모두 조화로운 우주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道體로서의 자연의 모습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선행연구에서 박인로의 생애 후반기에 지은 다섯 편의 가사는 작가가 ‘자신이 경험한 현실적 공간을 어떻게 성리학적 우주론이라는 도의 운행이 관철되는 이념이 투여된 자연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의 결과물들이라고 해야 할 것’¹⁷⁾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독락당>에 국한해서 적용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③ <노계가>, 낭만적 흥취와 정신적 보상 공간

<노계가>는 노계 최후의 가사 작품으로 76세 때인 1636년에 지은 것이다. 늘그막에 마음에 맞는 은거지를 찾아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흥취가 가장 고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躑躅良久타가 夕陽이 거원 적의
 陟彼高岡하야 四隅로 도라보니
 玄武朱雀과 左右龍虎도 그린 듯시 7갓고야
 山脈 밋친 아리 藏風向陽훈디
 靑蘿를 허허 드리 數椽蝸室을
 背山臨流하야 五柳邊에 디어 두고
 斷岸千尺이 가던 龍이 머무는 듯
 江頭에 들렸거늘 草草亭 훈두 間을
 구름 썬 긴 솔 아리 바휘디켜 여러니니

17) 김용철, 앞의 논문, 82면.

千態萬狀이 아마도 奇異코야

이 대목은 화자가 은거지를 찾아서 와실을 마련한 장면인데 공간 표상이 이전 가사에 비하여 범상치가 않다. 작자는 석양 무렵 높은 산에 올라 자신의 은거지가 음양오행의 풍수지리에 꼭 맞는 집터임을 확인하고 두어 개의 서까래를 얹은 와실을 지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싼 오묘한 자연풍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배산임수의 오류변은 도연명의 풍모를 연상시키고, 가던 용이 머무는 듯한 천 길의 절벽은 기이함을 자아내는데, 구름이 낀 긴 소나무 아래의 바위 위에 지은 초가는 신비롭기조차 하다. 묘사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장소가 구성된 것이다.

이 湖山 形勝은 견줄디 뇌야업니
 巢許도 아닌 몸애 어니 節義 알리마는
 偶然時來예 이 名區 임지 되어
 靑山流水와 明月淸風도 말 업시 절로절로
 어즈러운 鷗鷺와 數 업슨 麋鹿도
 갑 업시 절로절로
 沮溺 가던 묵은 밧과 嚴子陵의 釣臺도
 갑 업시 절로절로
 山中百物이 다 절로 己物되니
 子陵이 돌이오 沮溺이 서히로다
 어즈버 이몸이 아마도 怪異코야
 入山當年에 隱君子 되얏는가

이 공간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세와 정감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자신은 요임금 때의 허유나 소부처럼 천하의 양여를 피하여 형체를 숨긴 참된 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얻은 이 명승지의 임자가 된 즐거움이 거침없이 펼쳐지고 있다. 급기야 그의 낭만적 흥취는 ‘山中百物이 다 절로 己物’이 된다는 도취적 환상으로 빠져든다. 그의 시계에 포착된 온갖 사물들, 즉 청산유수와 명월청풍, 하늘을 나는 갈매기와 해오라기, 숲속에 뛰노는 온갖 사슴들까지 ‘절로절로’ 내 것이 되었으며, 문헌들 속에 존재하는 장저·결익의 묵은 발과 엄자릉의 조대까지도 내 것으로 소환된다. 이 얼마나 풍요로운 세계인가. 이 특별한 소유의 감각은 分財하기 어려운 명월청풍만은 부모 뜻을 아는 아들 하나에게만 이태백과 도연명의 증서로 특별히 물려주겠다는 상상으로 이어진다.

이 청정한 강호공간에서 화자의 유상과 흥취는 무궁하며 즐거움은 한껏 고조된다. 이 무한의 충족적 공간에서 그에게 없는 것은 그가 원치 않는 ‘저 貴한 三公’ 뿐이다. 그렇다면 먹거리는 어떠한가?

아희 불너 하는 말씀

이 深山 窮谷에 海錯이야 보로소냐

살진 고사리 香氣 薰 當歸草를

豬脯 鹿脯 相間 亨야 크나큰 細柳 筍에

洽足히 다마 두고

鮒魚 膾 初味에 訥魚 生雉 서거 구어

빚빚치 드리거든

瓦樽에 白酒를 박잔의 가득 부어

혼잔 또 혼잔 醉도록 먹은 後에

桃花는 紅雨되야 醉面에 쫓리논디

苔磯 너븐 돌에 눕히 베고 누어시니

無懷氏적 사름인가 葛天氏씨 百姓인가

해산물을 맛볼 수 없는 산중생활에서 산촌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길게 열거되고 있다. 저포와 녹포 사이에 살진 고사리와 향긋한 당귀를 넣어 커다란 버들고리에 충분히 담아 놓는다. 일용할 양식 이라기보다도 안주거리일 터이다. 그러나 어디 안주가 이뿐이겠는가. 첫맛으로 붕어회가 성에 차지 않는다면 누치와 꿩을 구워 먹음직스럽게 펼쳐 둔다. 이제는 질동이 속의 뽕안 백주를 취하도록 마시는데 바람결에 흩날리는 복숭아 꽃잎이 취한 얼굴에 비처럼 떨어지는 형상으로, 흡족하고 풍요로운 심상공간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작자의 실존 공간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무척이나 순진한 해석이다. 그의 <행장>을 참조하면 말년에는 ‘집안은 더욱 영락해지고 거처는 비바람도 가릴 수가 없었다. 흥년이 드는 해에는 끼니도 잊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실존 공간과 심상 공간의 거리는 <노계가>에 이르러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계가>의 흡족하고 풍요로운 세계상은 현실 세계의 물질적 결핍에 대한 정신적 보상공간, 상상적 보족공간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것은 박인로의 개체적 삶의 역정에서 儒人의 삶으로 전환한 이후, 단 한 번도 실제의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은 일종의 유토피아적 상상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우리는 노계 가사에 표상된 유교문화적 심상공간의 구성과 그 의미 지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노계 가사에서 형상화된 심상공간의 거시적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무인 시절에 창작한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삶의 운명을 다룬 전쟁가사들에서는 대

립적 공간 표상이 두드러지고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 위에서 그 의미 지향은 선명하고도 강렬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儒人의 삶으로 전환한 이후 개체적인 삶을 그려낸 그의 가사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동질적인 공간 표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부에서는 다층적인 의미 지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이유는 작중 공간을 형성하는 소재적인 측면이나 代作 또는 命作의 창작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작가로서 노계의 존재 현실을 우선 주목해야 하리라고 본다. 노계 가사 전체에서 심상공간 전환의 변곡점에 있는 작품이 <누항사>인데, 이는 武人→儒者의 전환적 삶의 행보와 일치한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궁핍한 생활 현실에서 유유자적한 강호 취향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迂闊’이라는 개인적 문제의식에서 찾았다. 이는 ‘현실 문제에 대해 비타협적이고 고답적인 대응 양상을 보이는 의식 지향’이지만,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부각되는 현실 문제를 정신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와 연결된다’고 한다.¹⁸⁾ 타당한 해석적 근거이다.

그러나 다시금 생각해 보면 박인로의 물질적 결핍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누항사>이후 그가 지은 가사에서 보여준 다채로운 의미 지향은 그가 현실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향한 모색, 즉 희망의 일종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희망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토피아와 유사하며, 경험하고 싶은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심상공간과 유사하다. 우리가 <노계>를 노년의 망상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8)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270면.

[ABSTRACT]

Confucian cultural imagery Space
and Its Implications of Nogye-gasa

Lee Hyung-dae(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Confucian cultural imagery space in Nogye-gasa. In the meantime, the spatial analysis of the Nogye-gasa shows a deepening aspect as the actual space behind the creation of the work and the spatial analysis as a place given meaning and value by the subje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stic geography have been made. These spatial analyses are all based on the premise of space experienced by humans, so there is a limit to the analysis of poetic space, which covers fiction, imagination, images and symbols. Therefore, the concept of "imaginative space," which encompasses not only the hands-on space but also the transcendent, was introduced to analyze Nogye-gasa

In the early Nogye-gasa, conflicting spatial expressions stand out, including *Taepyeongsa*, *Sunsangtan*, and *Nuhangsa*. The intensity of the theme realization stands out as it takes a way of developing awards that naturally move from the former space to the latter space as war, peace, poor reality and clean lake space confront each other.

However, later works are represented by a homogeneous space

called river and lake, including *Sajegok*, *Dokrakdang*, *Ipambyulgok*, *Soyoujeongga*, and *Nogyega*. However, inside of apparent homogeneity, significant disparate flows and deviations in emotional expression are found. In *Sajegok* the trend of peace and the direction of rural life are outstanding, in *Dokrakdang* the mind and conductor of nature are prominent, and in *Nogyega* romantic entertainment and the direction of spiritual reward are outstanding. On the other side of all these works, it seems that the author had a strong desire for a better life without giving up or giving up on reality.

Key words: Nogye-gasa, Park Inro, Confucian cultural imagery space, *Taepyeongga*, *Sunsangtan*, *Nuhangsa*, *Sajegok*, *Dokrakdang*, *Nogyega*.

[참고문헌]

□ 단행본

- 김흥규, 『옛시조의 모티프·미의식과 심상공간의 역사』, 소명출판, 2016.
- 사마천 저, 정법진외 역, 『사기본기』, 까치, 1994.
- 앙리 르페브르 저,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19.
- 이-푸 투안 저,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 정재서, 「먼 동쪽 神仙의 섬, 자라들이 떠받쳐」, 『동양의 신화』, <https://blog.naver.com/shim8151/100058967939>.
-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 논문

- 강영순, 「산수자연에 대한 유가적 즐거움 연구」, 『미학』 제19집, 한국미학회, 2014, 1-28면.
- 김성은, 「<소유정가>의 장소재현과 장소성 —화자의 주체성 문제를 바탕으로—」, 『어문론총』 제5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163-189면.
- 김성은, 「노계 박인로 가사의 공간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144면.
- 김용철, 「박인로 강호가사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155면.
- 김창규, 「노계 가사시의 지리적 자연배경」, 『노계 시문학 논고』, 박이정, 2007, 241-270면.
- 박경우·유정일, 『입암별곡』의 공간론적 배경과 공간적 의미, 『한국어문학』 제45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217-241면.
- 손대현,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기반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시가연구』 제29집, 한국시가학회, 2010, 121-156면.

이수환, 「조선전기 선비들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사회」,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 56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5, 45-82면.

정재서, 「먼 동쪽 神仙의 섬, 자라들이 떠받쳐」, 『동양의 신화』, <https://blog.naver.com/shim8151/100058967939>.

최현재, 「노계가사에 나타난 장소성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34호, 한국시가학회, 2013, 57-82면.

접수일: 2020.12. 07 총평일: 2020.12. 20 게재확정일: 2020.12. 30
